

과학과 기독교는 적인가, 친구인가?

네. 잠시만 저에게 집중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이 세대에 큰 담론이 되는 질문들을 선정하여,

요한복음을 통해 그 답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그럼, 오늘 밤의 큰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학과 기독교는 적인가, 친구인가?”

저는 여러분이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흔히들, 과학과 기독교는 적대적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과학과 기독교는 서로 양립할 수 없기에  
흔히들, 우리에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문기를,

‘당신은 종교를 믿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과학을 믿는 사람인가요? 라고요.

기독교를 선택하셨으면…,

어떻게 과학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일 수 있나요?

보편적으로 생각하기에,  
과학과 기독교는

서로 상반, 대립관계에 있으며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절친한 친구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 둘은 종종 적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과학과 기독교는  
서로 양립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생각해보고,  
제가 여러분들을 왜 이 둘이 적이 아니라,

실제로 좋은 친구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설득해 보려고 합니다.

왜 절친한 친구여야 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그러기 위해, 저와 함께 오늘밤  
요한복음 1장에서 알게 된 것에 대해

잠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알게 된 것과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은 것,  
이것이 두 가지 핵심입니다.

우리에게 말해준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디자인되었습니다.  
계획이 있었고, 목적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과학과 상반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창조자 혹은 설계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과학자들은

이 우주에 창조자가  
존재한다는 증명들이 많이 있다고 말합니다.

보시다시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이 우주가

임의로 구성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창조자의 손길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창조물과 창조주이자  
설계자와는 과학적 범주에서 볼 때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해주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말해주고 있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영원한 말씀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지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하셨다고 말해주고 있지만,

기술적인 부분, 곧, ‘어떻게’ 질문에 대해서는  
답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아도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은 아주 다양한 의문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에 대한 질문과

‘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만,

‘어떻게’에 대한 질문에는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사실, 성경은 설계자가 누구이며,

왜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있는지,

어떻게 여러분과 제가 살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 교과서처럼 쓰여진 것은 아닙니다.

만약 성경을 과학 교과서로 접근한다면,

우리는 성경이 의미하지 않는 각종의 답을 얻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다른 질문들,

‘누구’와 ‘왜’에 대해서 답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 식탁 위에

맛있는 케이크가 있습니다.

몇 분이 이게 진짜냐고 물으셨는데요.

네. 이것은 진짜입니다.

원하신다면, 이 아름다운 케이크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아볼 수 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케이크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까지 알고자 한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지역의 대학교에 이 케이크를 가지고 가서

다른 학과들에 가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이 케이크를 화학과에 가지고 가서

화학자에게 이 케이크를 보고 무엇이 있는지

말해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사실에 대해서 말해 줄 것 입니다.

전자, 양성자, 중성자 등

케이크의 각종 구성물질에 대해서요.

정말로 흥미로운 것입니다. 화학자들은 무엇이 케이크를

구성하는지 말해 줄 수 있습니다.

케이크를 들고 다음에 물리학과로 갈 수 있습니다.

물리학과에 가니, 말하기를,

‘화학자들은 겨우 주요한 것에 대해서만 말해 줍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쿼크와 그와 비슷한 것에 대해서 말해 봅시다.’

‘와 흥미롭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말하겠죠.  
‘정말로 케이크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수학과에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수학자들은 무엇을 말해줄까요?

수학자들은 각종 계량하는 기구를 꺼내어,  
케이크의 원을 재보고,

칠판에 어떻게 물질들이 빠르게 충돌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방정식을 적을 수 있습니다.

굉장하겠죠?

우리는 다시 케이크를 들고

키친으로 가서 주방장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주방장은 어떻게 다른 재료들을 가지고 만들었으며,

얼마나 오랫동안 오븐에서 구웠는지 말해 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케이크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웠고, 각 학과에서 그들만의 용어로

이 케이크에 대해서 말해 주었습니다.  
각기 다른 것을 말했지만,

서로 말한 것은 상충되지 않으며,  
일치되는 사실입니다.

다른 용어를 사용하였지만요.  
그러나 우리가

이 케이크를 만든 사람과  
왜 케이크가 만들어졌는지를 알려면,

이들 중에 아무도 이 질문에 대해서는  
말해 줄 수 없습니다.

이 케이크를 만든 사람과 왜 만들었는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럼,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해줘야 합니다.

한번 봅시다. 오늘밤 여기에 모인 분들 중에

이 케이크를 만든 사람이 있나요?  
아니요. 당신이 아닌 것은 압니다.

여기서 이 케이크를 만든 사람이 있나요?  
네. 당신 바로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왜 이 케이크를 만들었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이분은 제 아내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만들라고 해서요.”  
왜냐하면 제가 당신에게 만들어 달라고 했거든요, 맞아요.

또한 당신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 아닌가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녀에게 만들어 달라고 했거든요.

여러분이 이 케이크를 만든 사람과 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알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녀가 말하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이 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어떻게 작용하는 것을 알고자 한다면,

과학자들은 그 질문에 대해  
다양한 답을 말해 줄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창조하였으며,  
왜 우리가 여기에 있는 지 알려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매우 좋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배운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서는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신적인 존재이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는 이 세상에 온 우리의 창조주이시기에  
그에게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왜 우리가 여기에 있는 지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대단한 사실도 또한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되신다면,

우리가 알게 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자,  
목적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과학은 치명적인 대립적 적이 아니라,

절친한 친구입니다.  
성경에서 만난 하나님은

정말로 질서와 목적의 하나님이기때, 과학이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실상 과학의 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한다면,

성경은 과학의 기초를 제공하여 주며,  
우리에게 과학을 연구할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과학은 우리에게 예수님께 먼저 답을 구하고

그 다음에 만약 어떻게 지구가 작동하는지 이해하고자  
한다면 가서 지구를 살펴보길 권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학과 기독교는 적입니까? 친구입니까?  
네. 제대로 이해하셨습니다.

과학과 기독교는 절친한 친구입니다.

그럼 각 조로 돌아가서,  
몇분동안

지금까지의 내용에 대해 토론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9시 반이 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dentity – Who is God? Who are we?

© Lee McMunn, 2011

All rights reserved. Except as may be permitted by the Copyright Act,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without prior permission from the publisher.

Published by 10Publishing, a division of 10ofThose Limited.

All Korean scripture quotations are taken from the New Korean Revised Version. © Korean Bible Society.

10Publishing, a division of 10ofthose.com  
Unit 19 Common Bank Industrial Estate, Ackhurst Road, Chorley, PR7 1NH, England.  
Email: info@10ofthose.com  
Website: www.10ofthose.com